2025 autumn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44

gil
good in life
길

다시 성장의 시작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gil

2025
autumn
vol.44

03 Intro
넌 언제든 문만 열면 돼

04 Theme 1
조금씩 더 나아지는 우리, 병원과 그 안의 사람들

08 Theme 2
20년을 돌아보다

14 Theme 3
미래를 열다

18 Message
개원 2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20 Team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외과

24 Health 1
자외선과 눈 건강

26 Health 2
건강한 간을 위해

28 Korean Medicine
척추 질환 한방 치료

30 Focus 1
삶의 끝에서 만난 따뜻한 동행

32 Focus 2
조용한 나눔, 큰 울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키우는 힘

34 Essay
화합은 최고의 덕목

36 Temple
가을의 중심엔 오대산 월정사로 가세요

40 Law
어머니 명의로 상속 재산을 넘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발행인 이해원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5년 9월 1일 (통권 44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넌 언제든 문만 열면 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나온 대사예요. 고교 시절 유망한 육상선수였던 미지는 부상으로 꿈이 좌절되자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3년을 은둔하지요.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울부짖는 미지에게 할머니는 되묻습니다. "사슴이 사자 피해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 봐 숨으면 겁쟁이야?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잖아." 살자고 하는 모든 일은 용기 있는 일이라는 위로였다. 미지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어제는 끝났고…'를 주문처럼 되뇌입니다. 다시 방 안으로 숨어들지 않기 위한 미지만의 안간힘인 거지요.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머무는 '고립 · 은둔 청년'은 5.2%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2.5%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둔까진 아니어도 청년들의 도피 심리를 부추기는 일들은 차고 넘치지요. 갈수록 귀해지는 일자리, 치솟는 주거비, 결혼 · 육아에 따르는 부담 등 견디고 넘어서야 할 장벽 앞에서 숨통이 막힐 수밖에요.

드라마는 그런 오늘을 사는 청춘들을 위로합니다. '그대로 괜찮다'고. 미지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긴 시간, 기다려주고 문을 두드려준 사람들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지요. 진득하고 간절히 "넌 언제든 문만 열면 돼"라며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문밖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다는 걸요.

문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준 적이 있나요. 얼마 전 '밥 짓는 편의점'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인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식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밥과 반찬을 늘 준비해 둔다네요. 라면을 사면 밥과 반찬이 공짜, 달걀은 덤이고요. 하루를 살아내느라 분주한 청년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라는데요. 이런 어른이 있는 세상이라면 청년들도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개개의 어른을 넘어 문밖 버팀목이 우리 사회라면 더더욱 든든할 테지요.

조금씩 더 나아지는 우리, 병원과 그 안의 사람들

병원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환자는 의료진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병원은 단지 진료와 치료의 공간을 넘어
'서로가 자라나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어느 의사의 기록

"환자 한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이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라는 걸 느낍니다."

의사는 날마다 수많은 결정을 마주합니다. 환자의 회복이 곧 자신의 성장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더 나은 길을 찾고, 더 깊이 배우고, 자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많은 치유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환자의 하루

"처음 왔을 땐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보다 그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준 의료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그는 마침내 '이제 다 나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동 간호사의 이야기

"처음엔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만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하루와 사연,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보게 되더라고요."

환자는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환자와 쌓여가는 신뢰와 소통 속에서 그는 단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어느새 환자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며 또 다른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보호자의 고백

"처음 올 땐 불안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 여기가 이상하게 마음 놓이는
공간이 됐어요. 병원도, 우리도,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거겠죠."

익숙해짐은 곧 신뢰의 시작입니다. 병원이 쌓아온 시스템과 사람의 손길이 누군가의 일상에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든 결과입니다. 이제는 병원을 찾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이 공간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원무팀 직원의 회상

"입사 초반엔 솔직히 매일 허둥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그는 이제 자신보다 더 긴장한 얼굴을 한 후배에게 익힌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요즘, 매일 작은 성장들이 쌓여 어느덧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걸어가길 바래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자리와 역할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보호자,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직원들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은 결국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story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나의 인생도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았던 날은
2005년 늦가을이었다.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병원 외벽에 걸려 있던 시절이었다.
마흔셋이던 나는 '위암 2기' 진단을 받았고
생애 처음으로 '환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새 병원은 모든 것이 반짝였지만 그만큼 낯설고
불안했다. 진료실 앞에서 긴 시간 기다린 끝에 만난
첫 주치의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 있던 내 마음이 서서히 풀렸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재발 없이 5년을
넘겼다. 병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암을 이겨냈고, 내 회복과 더불어 병원이 변해가는
모습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병원 복도에는 그림이 걸리기 시작했고, 로비
한 켠에는 커피 향이 퍼졌다. 진료실 앞 대기줄은
더 길어졌고, 작은 정원과 휴게 공간이 생겼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일도 가능해졌고,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소식도 자주 들려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나는 60대가 되었다.

요즘 나는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진료로 1년에
몇 차례 병원을 찾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증세로
외래를 방문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혹시… 박 간호사님이세요?"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렇게 다시 뵙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과거
병동에서 항상 환한 얼굴로 나를 살피며 밤낮없이
병실을 돌며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던 간호사였다.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날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병을 이겨내는 데에는 치료만큼이나 진심이 필요
하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모여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었다는 것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함께 한 20년,
그 속에는 나와 같은 환자들의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병원은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동행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비를 품다
치유를 담다
원력을 심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20th Anniversary

20년을 돌아보다

의학 동국, 그 첫걸음

1994년 12월,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병원 설립 승인을 받은 후, 1998년 5월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을 열고 1999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2년 9월 병원이 준공되었고, 2005년 6월 첫 진료를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27일 정식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의학 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염원하며, 녹원 큰스님의 원력과 일만여 불자, 동국대학교 동문들의 정성으로 8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했고, 병원 건물은 '부처님 병원'이라는 마음을 담은 보시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졌습니다.

녹원 큰스님 착공 인사 _ 1999. 10.

준공 이후 2003년 5월 개원추진본부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전국의 뛰어난 의료진을 직접 찾아 단계적으로 모셔 오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병원 인근은 농지와 야산, 식사가구공단뿐이었고, 교통도 열악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자"는 각오로 개원을 준비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병원 안팎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직원들이 병원 주변을 청소하고,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서며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첫걸음은 교직원들의 헌신과 원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담긴 건축설계

병원은 설계 단계부터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 모두 쾌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병원 주 출입구에 세워진 8개의 열주(기둥)는 불교의 실천 수행법인 팔정도(八正道: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를 상징합니다. 이는 병원이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간임을 뜻합니다.

병원 외곽을 따라 이어지는 회랑에는 10개의 열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 출입구의 8개 열주와 더해 총 18개의 열주는 불교의 십팔계(十八界), 즉 육근(눈 · 귀 · 코 · 혀 · 몸 · 뜻), 육경(색 · 성 · 향 · 미 · 촉 · 법), 육식(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 의식)을 상징합니다.

건물의 높이와 구조도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4개 동으로 구성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각 동마다 불교의 사법인(四法印)을 상징합니다. 외래진료동은 '일체개고인(一切皆苦印)', 입원병동은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중앙지원동은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장례식장동은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각각 명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원병동은 지상 12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불교의 기초 교리인 12연기(緣起: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병사)를 상징합니다. 이는 생명 있는 존재가 어떻게 삶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이처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축물 전체에 불교의 핵심 교리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담아, 공간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처이자 자비의 현장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개의 열주 _ 팔정도(八正道)를 상징

환자 곁에서 신뢰와 전문성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까지 헤아리며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도 질환 치료와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통해 우수한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더 나은 의료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그리고 안전 관리 시스템까지 공신력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뇌졸중 등 주요 질환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 · 한 통합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진료 체계를 구축해 치료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과 한의학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과학적인 진단과 예방 및 치료 기술의 결합으로 보다 근본적인 질병 극복의 길을 열고 있으며, 한 차원 높은 의료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로 미래를 여는 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암, 고위험질환, 급성기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IT 기술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첨단 의료 인프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은 완치율과 환자 만족도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송담 로봇수술센터 개소 _ 2021. 12.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개소 _ 2024. 05.

자비의료, 세상과 함께 걷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병원을 지향하며 다양한 의료지원과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 지역에도 꾸준히 봉사단을 파견하여 국경을 초월한 인술(仁術)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병원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축행사, 전국승려대회,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및 인도순례,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걷기대회, 불교박람회 등 다양한 불교계 행사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불자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 _ 2023. 03.

2005년 9월 개원 이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 실천을 바탕으로 2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발자취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길에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앞선 의술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20주년 **엠블럼&슬로건**

Emblem

지난 20년간의 도약과 성장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아
기획되었다. 다채로운 색상의 교차와
유기적인 곡선은 사회 전반과 의료진, 환자가
긴밀히 연결된 포용적 공동체를 상징하며,
병원이 추구해 온 소통과 화합을 시각화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세를 담아
미래를 향한 의지와 움직임을 표현했다.

Slogan

자비를 품다
치유를 담다
원력을 심다

병원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축한 말로, 지나 온
20년을 넘어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비전이다.
「자비를 품다」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를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치유를 담다」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낸다.
「원력을 심다」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의 비전을 상징한다.

❶ 개원식 _ 2005. 09.
❷ 첫수술 _ 2005. 07.
❸ 송년의 밤 개최 _ 2005. 12.
❹ 암센터 개소 _ 2007. 2.
❺ 교직원 체육대회 개최 _ 2009. 10.
❻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의료지원 및 참여 _ 2012. 05.

❼ 국제진료센터 개소 _ 2012. 06.
❽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개소 _ 2019. 06.
❾ 코로나 19/음압병실 운영 _ 2020. 04.
❿ 뇌신경중재실 개소 _ 2022. 10.
⓫ 불교도 대법회 의료지원단 파견 _ 2024. 09.

시작의 시간
첫걸음, 생명의 터전을 세우다

1994 ▸ 2005 ▸ 2009

2005년, 우리는 의료와 불교정신이 만나는 길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병원 문을 두드린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의료진.
그 순간부터 삶을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994. 12. 학교법인 동국학원, 병원설립 승인
1998. 05.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1999. 10.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2002. 09.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준공
2003. 05. 개원추진본부 구성
2004. 10. 이석현 초대 의무원장 겸 병원장 취임
10. 이원철 초대 한방병원장 취임
2005. 05.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06. 병원 진료개시
07. 한방병원 진료개시
09. 개원
2007. 03. 제2대 이명묵 병원장 취임
04. 동국대학교의료원 출범
09. 제12대 이명묵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9. 제3대 이진호 병원장 취임
2008. 03. 제2대 구병수 한방병원장 취임

도약의 발판
변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010 ▸ 2014

전문 진료·의료진 강화,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재 양성. 우리는 도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병원의 내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큰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 01. 제13대 민응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8. 2010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09. 양·한방 통합 뇌손상집중치료센터 개소
09. 개원 5주년
10. 갑상선센터 개소
2011. 03. 1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04. 한국인 뇌 MR영상 데이터센터 지정
06.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 선정
07. 한방미용센터 개소
09. 제14대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12. 제4대 태석기 병원장 취임(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겸직)
2012. 02. 제5대 채석래 병원장 취임
02. 제3대 김동일 한방병원장 취임
06. 국제진료센터 개소
2013. 03. 제15대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2014. 04.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06. 뇌졸중 최우수 병원 선정

함께 만든 성장
사람, 성장을 이끌다

2015 ▸ 2019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성장의 기록.
더 깊이 듣고 가까이 다가가며 신뢰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매 순간 사람을 중심에 두며 병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은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2015. 01. 1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인증 획득
05. 제16대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5. 제6대 오민구 병원장 취임·제4대 정지천 한방병원장 취임
09. 개원 10주년
2017. 01. 제7대 채석래 병원장 취임
03. 제17대 오민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7. 제18대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7. 제8대 이진호 병원장 취임(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겸직)
2018. 01. 제5대 김동일 한방병원장 취임
03. 제9대 조성민 병원장 취임
2019. 02. 3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03. 제19대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3. 제10대 이해원 병원장 취임
03.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개소
06.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개소
09. 고위험 임산부·태아 집중치료실 개소
12. 제6대 임성우 한방병원장 취임

다시 새로운 시작
연결, 미래를 향한 동행

2020 ▸ 2025

예기치 못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멈춤이 아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연결과 공감, 유연한 변화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 03. 제20대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3. 제11대 권범선 병원장 취임
03.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송담 로봇수술센터 개소
2022. 09. 의료원 건학위원회 출범 발족식
10. 뇌신경중재실 개소
12. 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인증 획득
2023. 02. 상월결사 인도순례 의료지원
04. 4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03. 제7대 김동일 한방병원장 취임
07.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수탁기관 선정
2024. 05.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개소
2025. 03. 제22대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03. 제13대 백용해 병원장 취임
09. 개원 20주년

미래를 열다

대담

백 용 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김 동 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김동일　맞습니다. 백용해 병원장님도 저도 병원 개원 초기부터 함께해 젊은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지요.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 중에서도 후발주자였던 터라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개원하던 해만 해도 병원 주변은 논밭과 가구 공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위시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주면서 병원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병원이 스무 살 청년이 되었고, 그 사이 일산은 1기 신도시로 30년을 맞이하며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인구 중심도 일산동구에서 덕양구로 이동하면서, 의료 수요와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느낍니다.

개원 20주년 의미와 감회

백용해　2005년 병원이 개원하고 그로부터 20년, 병원의 성장과 함께 저 역시 의료인으로서 많은 경험과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병원이 스무 살 청년이 되기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의사로서 제 인생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기에 병원은 제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병원장으로서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융합 의료의 선구자, 20년간의 상생과 협력

김동일　우리 병원은 양 · 한방이 함께하기에 협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창기 신경과, 특히 뇌졸중 협진에서 큰 시너지를 냈고, 지금도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양방은 로봇수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한방은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최신 지침에 기반한 합리적 진료를 지향합니다.

한방은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 특히 '보양' 개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병원은 공진단, 경옥고 등 보양제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정통 처방 그대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제조해 환자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생산설비를 점검하며 품질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용해　맞습니다. 병원장님이 잘 관리하시는 덕분에 우리 한방병원 보양제가 환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 한방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이 양 · 한방 협진을 활성화하려 노력했고,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주춤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김 원장님과 제가 힘을 합쳐 '양 · 한방 협진'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야겠지요.

도약의 시기, 청년 병원의 미래를 설계하다

백용해　우리 병원은 초기부터 역대 원장님들의 노력으로 센터 중심의 구조를 갖췄으며, 다양한 센터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외과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백용해**

진료과 : 외과 | **전문진료분야 :** 위, 식도, 십이지장질환, 복강경위암수술, 성인탈장(성인탈장클리닉, 위암클리닉), 비만 대사 외과, 로봇수술

산부인과를 연계해 여성종양센터를 신설해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요즘 관심이 높은 소아 성장 분야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 재활의학과 · 소아정신과를 연계한 '소아바른성장센터'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교수님들의 진료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병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로봇수술센터도 장비를 추가해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병원이 청년기를 맞았으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른 메이저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가야겠습니다.

김동일　한방병원은 현재 8개 과로 구성돼 있으나, 질환 중심의 진료 체계로 개편하려 합니다. 통증, 재활, 여성, 노인, 소아청소년 등 분야별로 의료진을 재배치하고 협업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간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양방과의 협진을 위해 임상경로를 표준화해 어떤 치료가 이어질지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어떤 한방 치료가 효과적일지 명확히 해 양 · 한방이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해 덕양구 분원도 검토 중이며, 외래 중심 분원과 입원 중심 본원을 연계해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고, 연구 · 교육 영역도 함께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병원,
환자를 위한 기술의 진보

백용해　우리 병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병동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약물 · 물품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AI 시스템을 진료에 접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병원의 본질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 바이탈사인을 실시간 예측하는 RRS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AI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일　한방병원도 정책과제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도 최근 산후조리 앱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환자 데이터를 등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방 진료는 의사의 철학과 분석, 경험적 판단에 기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다소 사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학습 기능과 추론 능력을 접목해 보면, 체질의학과 같은 한의학 고유의 영역에서도 정밀 의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불교정신,
병원의 뿌리이자 미래

백용해　불교병원으로서 우리는 병원의 30년, 40년을 관통할 수 있는 미션을 새롭게 정립하려 합니다. 그 핵심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입니다. 이는 병원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에게도 스며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3040 미션'은 바로 이 자비정신을 기반으로, 모든 이에게 따뜻함이 닿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토대로 2030년대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고, 대학병원으로서 진료와 연구 역량도 더욱 견고하게 다질 계획입니다.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공간, 자비가 살아 숨 쉬는 병원,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무주상 의료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봉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김동일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라는 두 날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혜'는 의학지식과 의료권고가 환자에게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자비'는 바로 인술입니다. 인술의 측면에서는 내원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인술, 그리고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인술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비와 인술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본래 경험을 중시하고, 과거의 방법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현대의학과의 접점을 더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　이명혜 기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김동일**

진료과 : 한방여성의학과 | **전문진료분야 :** 건강증진, 난임, 갱년기장애, 자궁근종, 월경통, 골반통, 다낭성난소증후군, 산후풍, 수족냉증, 피부미용 및 탈모

도전, 그리고 성장

백용해　개원 20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병원의 공간마다 그분들의 삶이 스며있지요. 병원은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진짜 꽃을 피우는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병원을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페달을 밟겠습니다.

김동일　우리 병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배 교수님들이 정년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며 침을 시술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더 도전적인 진료를 펼쳐나가겠습니다.

20th Anniversary Message

축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축사를 담았습니다. 병원의 성장 과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해원

동국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병원이 20년의 역사를 쌓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함께 성장해 왔다는 의미 있는 증표입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의료의 본질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시간 속을 함께한 구성원으로서 병원의 성장과 변화, 때로는 크고 작은 고민의 순간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성원의 헌신,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소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 의미 있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었기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다가올 20년은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또 다른 비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가치 위에서, 변화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적 병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혜경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5년 첫 개원 이래, 지난 20년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우수한 연구와 교육,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하며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오셨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며, 생명과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오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역시 같은 이름 아래, 같은 철학과 사명을 품고 나란히 걸어온 동반자로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20년 여정을 뜻깊게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쌓아온 길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활발한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1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한 도약의 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교직원 여러분의 길을 환히 비추어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근우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장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의 교원 및 교직원을 대표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고 곧게 나아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습은 우리 분당한방병원에도 큰 힘과 귀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든든한 형제처럼 함께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있기까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 병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원 및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일이 있는 반면, 더 큰 책임감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곧 더 큰 동력으로 전환되어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그 너머의 미래에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는 자비의 의료, 사람 중심의 병원으로 더욱 빛나길 기대합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정진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민섭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장

존경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족 여러분, 개원 2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탁월한 의료 역량과 꾸준한 연구,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환자 중심의 정밀하고 온정 어린 진료, 첨단 의료기술의 선도적 도입, 의료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구현해 오신 점은 미래 의료의 방향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 또한 같은 동국 가족으로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성과에 찬사를 보내며, 귀 병원이 걸어온 길은 후배 의료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긍심의 원천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산에서 시작된 선한 물결이 더 많은 생명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양·한방 협진이라는 통합의료 모델을 함께 실현해 나가며, 앞으로도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염원합니다.

동국 의학의 깊이와 넓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향력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교직원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경주한방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외과**

최첨단 로봇수술과 장기이식까지, 환자 중심 중증 외과 진료 실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는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외과 진료
기관으로서, 응급 수술부터
고난도 암 수술, 간·신장이식,
첨단 로봇수술까지 폭넓은
수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맹장염, 담낭염, 탈장 같은
일반 외과 수술부터
위암, 대장암, 담도암, 췌장암,
유방암 등 복잡한 암수술,
장기이식까지 아우르며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료로
환자 중심 수술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첨단 로봇수술, 축소 포트 기술로 한 걸음 더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밀한 암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특히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 등 고난도 수술 영역에서 고해상도 3D 카메라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적용된 로봇팔을 활용해 림프절 절제, 신경·혈관 보존이 중요한 수술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 4~5개의 절개창(포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전한 3포트(축소 포트) 로봇수술을 적극 도입해 절개 최소화, 회복 속도 향상, 감염률 감소라는 세 가지 임상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시 내에서도 드물게 단일공 복강경 위암 수술과 축소 포트 로봇 위암 수술을 동시에 시행 중이며, 로봇수술의 영역을 대장암, 췌담도 수술 등으로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장암 및 직장암에 대한 로봇수술'은 현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에서만 시행 중으로, 정밀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복잡한 증례에서 지역 유일의 고난도 수술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는 경기 북부 권역 최초로 최고난도 외과 수술 중 하나인 복강경하 췌십이지장 절제술 성공을 바탕으로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과 숙련된 전문 의료진의 역량을 접목해 고난도 암 수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장기이식 진료 역량 강화

간담췌외과 및 이식외과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간이식·신장이식 등 고난도 장기이식 수술 분야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이식환자에 특화된 장기이식 집중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간 진료 연계를 강화해 수술 전후의 감염관리, 면역반응 모니터링 등 통합형 치료 프로토콜을 통해 이식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 있다. 환자 선별부터 공여자 평가, 수술 계획, 면역억제제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신장내과, 감염내과, 중환자실, 영상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이 정례화되어 있으며,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진료 역량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 공백 속에서도 수술 실적 상승세

외과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과 PA 간호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난해에도 꾸준한 수술 실적을 이어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체 수술 건수뿐 아니라 암 수술 건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고난도 수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환자 치료에서도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한 달 이내'를 목표로 운영 중인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암 환자의 조기 진단과 수술 연계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단 - 수술 - 회복 - 치료 연계의 전 과정을 병원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만족과 신뢰를 주고 있다.

의국장 김성룡 교수는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수진과 PA 간호사들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수준 높은 수술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를 대비한 인력 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숙련된 팀워크, 끈끈한 조직문화

외과는 10명의 교수진과 8명의 PA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수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수술 전후 전반을 담당하며, 교수진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의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수술실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 수평적 소통 문화를 조성하며, 교수와 간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진료 전 과정을 설계한다.

마음을 다하는 수술팀

의국장 김성룡 교수는 "좋은 수술은 기술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협업에서 비롯된다"며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전했다.

"한 환자분이 지방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치료를 포기하려던 순간, 우리 외과팀은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밤낮없이 논의해 수술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의료진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외과의 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는 앞으로도 간·신장이식, 복강경·로봇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 진료시스템 고도화, 환자 맞춤형 진료 프로세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술은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서로를 믿는 팀워크, 환자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는 전문성의 축적이 환자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는 오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외과'로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다.

의료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백용해	위, 식도, 십이지장질환, 복강경위암수술, 성인탈장(성인탈장클리닉, 위암클리닉), 비만 대사 외과, 로봇수술
박영진	대장항문질환, 대장항문클리닉, 로봇수술
곽범석	유방외과(유방암, 양성유방질환), 내분비외과(갑상선질환)
김성룡	간, 담도, 췌장질환 수술, 로봇수술
반은정	내분비외과,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경부질환, 최소절개수술, 내시경 및 로봇 수술
정은성	간이식, 신장이식
류윤범	간담도췌외과(간, 담도, 담낭, 췌장, 십이지장의 양성, 악성질환), 로봇수술(담낭, 총담관낭, 췌장낭종, 팽대부 주위 종양)
김하경	유방양성질환, 유방암, 로봇수술
김언빈	대장항문클리닉, 대장항문질환(소장 및 대장암, 소장 및 대장의 양성질환)의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개복수술
황두영	위, 식도, 십이지장질환, 복강경위암수술, 성인탈장, 로봇수술

자외선과 **눈** 건강

햇빛이 강한 계절, 눈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양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과 보호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렬한 태양 빛 아래 우리는 피부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만큼, 눈 보호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부처럼 눈도 자외선에 민감하여 자외선에 잘못 노출되면 각막염, 군날개, 백내장 및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 못지않게 눈에 대한 자외선 차단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닿는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구분됩니다.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어 지표면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UVB는 각막과 결막 등 눈의 표면에 손상을 주는 반면, UVA는 파장이 길어 눈 내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망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외선은 고에너지 전자기파로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눈의 다양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간편한 것은 아예 한낮의 뙤약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부득이 활동할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확실히 검증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UV 400' 또는 '100% UV 차단'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가능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는 눈에 해로운 UVA와 UVB를 99~100% 차단함을 의미합니다. 렌즈 색상이 짙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KC 인증 혹은 CE · ANSI 같은 국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증 저가 제품은 차단력이 떨어지고, 색만 짙은 렌즈는 동공을 크게 하여 더 많은 자외선을 눈 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자 역시 눈 건강에 필수적인 자외선 차단 수단입니다. 특히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과 목까지 햇빛을 차단해 줍니다. 색상은 검정, 남색 등 진한 색이 자외선을 더 잘 흡수해 효과가 뛰어나며, 챙은 최소 7cm 이상이어야 충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일론이나 면 같은 촘촘한 소재에 UV 차단 코팅이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구멍이 많거나 얇은 망사 타입은 피해야 하며, 머리에 편안히 맞고 챙 각도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이 이상적입니다.

양산은 얼굴부터 목, 어깨까지 넓은 범위에 그늘을 주어 자외선 노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원단이 두껍고 촘촘하여 짙은 그늘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UPF (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자외선차단지수) 40 (약 97.5% 자외선 차단 효과) 이상으로 표기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양산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양산과 우산을 겸하는 양우산의 경우 우산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성능 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모자를 쓴 여성의 초상화를, 클로드 모네는 양산을 쓴 여인을 자주 그렸습니다. 인상파 화가인 이들이 모자와 양산을 소재로 삼은 것은 그림에 색채를 풍부하게 하거나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것을 바탕으로 모자를 쓴 여인의 성격과 분위기, 양산을 항상 지니고 사용하는 여인의 품위와 우아함을 담아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 건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외선과 눈 보호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의 작품 속 양산을 통해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법합니다.

한편 선글라스, 모자, 양산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멋진 패션 소품이자 자기표현의 수단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양산까지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
하효신 교수

전문진료분야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결막염, 포도막염, 안과검진

건강한 **간**을 위해

간은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침묵의 장기'로, 병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면 '혹시 간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하며 소화기내과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간경변(간경화)처럼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간 건강을 확인하고,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의 모양과 기능

간은 우리 몸의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며, 무게는 약 1,200~1,500g 정도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알부민과 혈액응고인자 같은 단백질의 합성, 노폐물과 대사산물의 해독 및 배설이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해져 지혈이 어렵고,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게 됩니다. 담즙 배설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황달이 나타나며,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이 짙어지거나 콜라색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피로는 간 때문일까?

피곤함을 느끼면 흔히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하지만, 피로는 당뇨,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그 원인은 비만, 수면장애, 우울감,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간염

급성 간염은 바이러스, 음주(폭음), 약물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인 경우 초기에는 열, 오한, 근육통 등의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해 메슥거림, 구토,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감 등이 이어집니다. 이후 피로감이 심해지고 황달이 생기면서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피부까지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황달이 진행되면 소변 색이 짙어지고 때로는 콜라 색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만성 간염 및 간경변

만성 간염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는 사이에 간경변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간경변이 심해지면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거나,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인해 토혈이나 혈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기 간경변에서는 간이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해 의식 저하,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간암

간암 역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복부에서 혹이 만져질 정도가 되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한 생활 수칙

-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는다.
- 20~50세 성인은 A형 간염 항체 유무를 확인하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한다.
- 과음은 피하고 적정 음주량을 지킨다.
-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지방간을 예방한다.
- 체중 관리는 지방간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은 심뇌혈관 질환을 막고, 나이가 들어서도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평소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피로와 불편함 속에 간의 신호가 숨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간을 위한 배려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은종렬 교수

전문진료분야
간질환,
일반 소화기질환

척추 질환 한방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기능 회복

한방(韓方)으로 건강하게

광고용 이미지 모델

한의학에서는 같은 척추의 통증이라도 병인을 분류하여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풍, 한, 습, 습열, 기, 어혈, 좌섬, 담음, 식적, 신허 등의 내적 혹은 외적인 요인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의 치료는 크게 침, 뜸, 부항, 추나, 운동요법 등 물리적 자극 치료와 한약, 약침 등의 약물 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 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경락 이론에 따라 통증 부위와 멀리 떨어진 곳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침 치료, 부항 치료 등은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 및 림프 순환을 도우며,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세한 척추의 부정렬 상태를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지만, 한의학과 서양의 정골의학에서는 바르지 못한 척추의 정렬 상태는 신체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통증과 가동 제한 뿐 아니라 수면, 소화, 심폐기능 등 다양한 자율신경과 관련된 기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척추의 틀어짐을 바로잡는 것이 척추 통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중요하며 구조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물리적 자극치료에 비해 한약 치료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 중요성이 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약물 치료는 척추 질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의학적 병인에 의해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해석하여 처방하기도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예를 들어 보자면, 디스크 초기에 디스크 탈출로 인해 신경에 압박이 생기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데 한약은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가동 범위 제한을 줄여 줍니다. 한편 디스크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함으로써 탈출한 디스크 수핵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 등 연부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면서 면역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연골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요통에는 활락탕, 만성요통에는 오적산 육미지황탕 등의 처방이 상황에 맞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침, 뜸, 부항, 한약 엑기스제 등 전통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온 치료법뿐 아니라 5년 전부터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시술받기 좋아졌고, 2024년부터는 허리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한약(첩약)이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환자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척추 통증으로 일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되는 만성 척추 통증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운동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법들을 평소에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트랜스 지방-포화지방 등 질 낮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고 고단백 식사, 오메가3 등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야채류 등의 항염증 식단 또한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속단, 두충, 모과 등이 약재로써 혹은 차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만성통증에는 비타민 D의 부족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햇볕을 쬐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해진 고유수용성 감각기능(관절, 근육, 인대 등에서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감각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트레칭과 균형감을 키우는 훈련과 함께 장기적인 척추 건강을 위해서 배, 등, 옆구리 등 코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한의 치료와 함께한다면 만성 척추 통증 질환이라는 어려운 상대가 어느덧 극복할 수 있을 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호준 교수
전문진료분야 ▶ 척추질환, 뇌척수마비, 교통사고 후유증, 비만, 해독, 체형교정

삶의 끝에서 만난 따뜻한 동행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따뜻한 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병원 최초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

지난 2025년 5월 15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한방병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의료원 소속 병원 중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들이 육체적 통증은 물론 정서적·영적 고통까지 덜어내며 마지막 여정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총 9병상(4인실 2개, 1인실 1개, 임종실 2개)으로 운영되며, 전문의가 완화의료를 전담하고 있다. 호스피스팀 기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 1명,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1명, 음악·미술·원예 등 요법 치료사 3명, 그리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 말씀 기반으로 정서적 돌봄

병원 6층에 위치한 법당은 49재를 기리는 영가인등이 켜지고, 소규모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이 영적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매주 두 차례, 스님이 병동을 돌며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문을 전한다.

권은경 사회복지사는 “통증은 물론, 두려움이 주 증상인 분들에게는 신체적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40~50대처럼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병원을 찾을 경우 소원 성취 프로그램, 자녀에게 남기는 편지쓰기, 생일 파티 등 작고 따뜻한 시간을 준비한다. 가족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차분히 정리하도록 돕고 있다.

권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슴 찡한 일도 많다고 한다. 폐암을 앓던 60대 남성 환자,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세 딸과 손주들이 함께 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동을 찾아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 사랑을 느끼며 평온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슬픔보다 온기로 가득했던 병실. 그 가족의 마지막 시간은 이별이 아닌, 사랑의 완성이었다.

감사와 평온의 여정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친 보호자와 환자를 맞이하는 풍경마저도 따뜻하다. 병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산 풍경은 마음의 여백을 선물한다. 한방병원 특유의 한약 향은 오히려 ‘시골 같고 포근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법당은 투병 과정에서 지친 환자와 가족에게 ‘나만의 쉼터’가 된다.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전 팀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환자별 돌봄 계획을 공유하고 보호자와의 관계, 정서 상태,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꼼꼼히 챙긴다. 또한, 환자의 사후에는 가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안부 전화를 하고, 연 2회 ‘사별가족 모임’을 열어 근황을 나누며, 미술치료 등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평온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 조용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따뜻하고 불심 어린 마지막 여정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삶의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이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031-710-3755

글 이명혜 기자

조용한 **나눔**, 큰 **울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키우는 **힘**

㈜아라니아 **박덕선** 대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병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기부자의 보시가 있었기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명실공히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매월 꾸준히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는 박덕선 기부자를 만나보았다. 파주시 신촌산업단지 내 (주)아라니아 지사에서 만난 박덕선 대표는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에 열정으로 빛나는 눈빛의 소유자였다.

거미줄처럼 세상을 네트워킹하다

"아라니아는 거미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섬세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아라니아는 K-POP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인쇄 전문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획부터 디자인, 인쇄, 생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토털 프로덕션 기업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파주시 신촌산업단지 내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춘 아라니아는 2023년 기준 연 매출 1,150억 원, 임직원 55명 규모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K-POP 스타들의 음반 재킷, 포토카드, 응원봉, 화보집 등 글로벌 스타들의 굿즈 제작을 전담하며 국내외 팬들을 열광시키는 감각적이고 정교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토카드, 응원봉 등 K-POP 굿즈 분야에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라니아'라는 상표 역시 공식 등록을 마쳤다.

박덕선 대표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기획자로서, 직접 K-POP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시장 흐름을 읽고,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AI와의 융합 가능성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창의성과 품질,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거미줄처럼 정교하고 넓게, 세계를 향해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철학 아래, 직원 복지와 근속 보상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 제도는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 사업자 설립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더 확장할 계획도 준비 중이다.

주변을 살피는 자비심으로 2000년부터 기부활동 이어와

충남 대천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박덕선 대표는 "집이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농사일로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힘드셨을 것"이라며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 육성회비를 내야하는데 부모님 힘드실까봐 말도 못 하고, 우유 급식을 신청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런 성장 환경은 자연스레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2000년부터 고아원 등에 소규모 후원을 시작으로 사회 환원 활동을 실천해 온 박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인연 공덕이 쌓여 만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고양시에 거주 중인 박덕선 대표는 2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며 여러 대형 병원을 경험했다. 그 가운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가장 편하고 신뢰가 가는 병원'이었다고 말한다.

"처음 방문했을 때 병원이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체계적이어서 계속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장인과 장모, 처남 가족까지 모두 한 동네에 살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이용한다는 그는 '온 가족의 주치의 같은 병원'이라고 표현한다.

기부는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 병원을 방문했다가 1층의 '기부자 라운지'라는 간판이 눈에 띄어 들어가 본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기부를 하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와의 인연은 조부모님 대부터 이어져 왔다. 결혼 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아내와 함께 해마다 강원도 화암사와 여수 향일암 등을 방문하여 주지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이렇듯 오랜 시간 쌓아온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향하는 자비로운 나눔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글 이명혜 기자

염화미소
拈華微笑

무여스님

화합은 최고의 덕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 불보종찰 통도사 일주문 앞에는 두 개의 석주(石柱)가 당당하게 서 있다. 그 앞면에는 한문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방포원정상요청규(方袍圓頂常要淸規)
이성동거필수화목(異姓同居必須和睦)

'방포'라는 것은 스님들이 수하는 대가사를 의미한다. 가사를 펼쳐보면 그 모양이 직사각형, 즉 방형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원정'이란 스님들의 삭발한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 '방포원정'이란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규'란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 살 때 지켜야 할 규율을 말한다. 따라서 '방포원정 상요청규'라는 말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사는 스님이라면 항상 이곳에서 규율을 잘 지키라'는 뜻이다.

'이성동거'란 김 씨, 이 씨, 박 씨 등 성(姓)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한다. 사찰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이 출가하여 함께 지내게 된다. 따라서 '이성동거필수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출가하여 함께 지낸다면 반드시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스님들이 모여 사는 사찰에서는 정해진 규율의 준수와 함께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가의 본질은 화합중(和合衆)이라 하여 다 같이 화합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한다.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화합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존속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화합하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육화경법(六和敬法)이 있다. 대중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身), 구(口), 의(意), 리(利), 계(戒), 견(見)의 여섯 가지로 화합해야 한다.

첫째, **신**(身)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항상 깨끗하고 정정한 행을 하며, 이치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다. 정정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고 몸으로 화합함을 뜻한다.

둘째, **구**(口)로 화합한다는 것은 자비롭게 화합하는 말을 하여 서로 어긋나거나 다투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약보다 혹독하다. 말로 인해 크게 다투고 화합을 깨뜨릴 수 있으니, 곱고 부드럽고 화합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의**(意)로 화합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켜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와 남을 평등하게 생각하여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항상 온화한 마음으로 화합하려는 것이다.

> 승가의 본질은 화합이며,
> 이는 공동체 유지의 핵심 가치이다.
> 이를 위해 수행자는
> 신·구·의·리·계·견의
> 여섯 가지로 화합해야 한다.

넷째, **리**(利)로 화합한다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함을 뜻한다.

다섯째, **계**(戒)로 화합한다는 것은 몸과 말과 뜻을 항상 바르게 하여 번뇌를 끊고 수행을 진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견**(見)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함께 닦고 함께 잘 알며, 함께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지니고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서원을 견고히 하여 화합하는 것이다.

몸이 다투지 않고, 말이 거칠지 않고, 마음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곳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난다.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글 무여스님

現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 유튜브 '무여스님 TV' 운영 /
달마사 · 화계사 · 연운사 불교대학 강사 / 저서 〈우리 함께 떠나요〉

템플 스케치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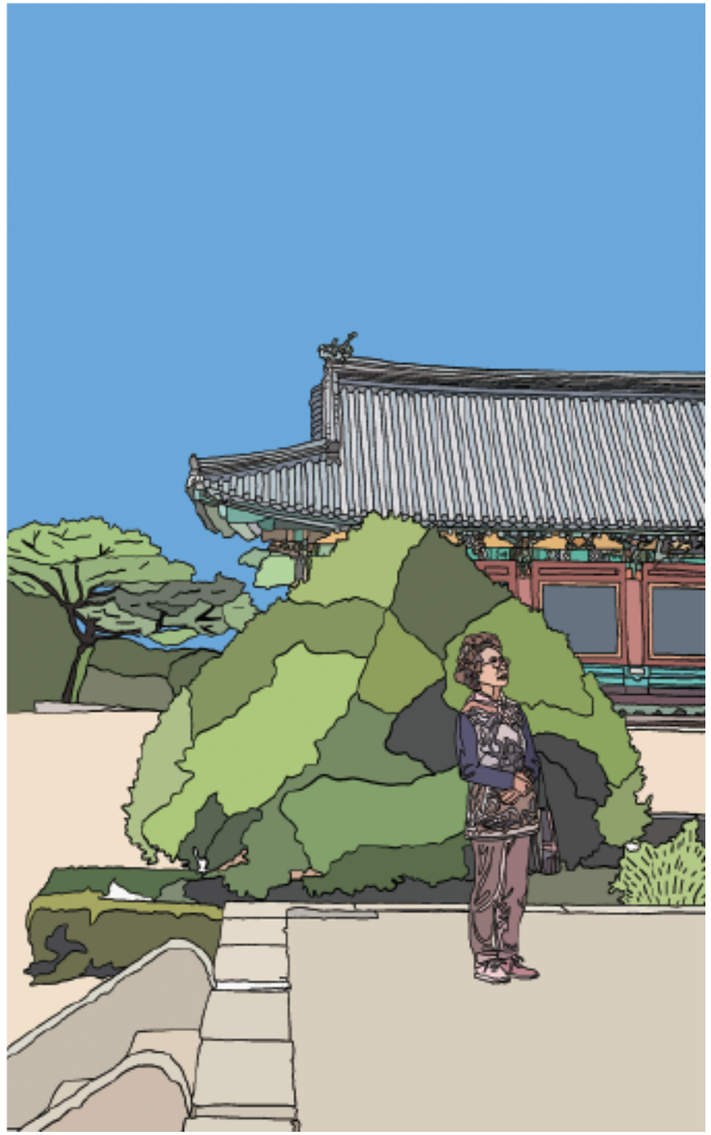
가을의 중심엔 오대산 월정사로 가세요

토요일 이른 새벽 영동고속도로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이젠 선택이 여럿 있지만 느긋하게 달리기엔
영동고속도로가 역시 최고였다.
새로 만든 도로는 터널을 통해 순식간에
태백산맥 너머 강원도 땅에 발을 딛게 하지만
목적지에 서둘러 도착하는 것 만이
여행은 아닐 것이다.
눈 앞에 펼쳐진 풍광이 운전을 즐겁게 했다.

전나무숲길을 걸어 월정사로 들어가고 싶어
숲길 초입에 차를 세웠다. 비 내린 후 물을
머금은 숲은 짙고 깊어져 있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은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라고 했다.
태백산맥의 중추에 자리 잡아 깊은 수림과
부드러운 황색 흙으로 이루어진 토산은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휴식이 된다.
앞서 걷는 노부부는 숲길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월정사 천왕문을 통과해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
짙은 숲 내음 사이에 따뜻한 온풍이
함께 느껴졌다.

누각 아래를 통과하는 절집의 구조는 언제나 감탄을 불러온다. 담을 치지 않고도 눈 앞에 있는 공간을 숨겼다가 극적인 순간에 펼쳐낸다. 일주문부터 하나씩 지나다보면 부처님의 땅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전각의 모퉁이를 돌아 펼쳐지는 절 마당과 법당을 거쳐 고개를 들고 올려다봐야 하는 누각으로 들어서면 부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에 발이 묵직해진다.
오늘은 그 묵직해진 걸음이 천녀들의 연주로 경쾌하게 변한다. 누각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는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 아래 하늘로 솟은 단색의 석탑, 그리고 주불을 모신 웅장한 본당을 만나면 절로 울컥해지는 환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위바위보를 이긴 여동생이 계단
맨 위로 뛰어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오빠를 장난스럽게 놀렸다.
절 마당을 사진에 담고 있다가 갑자기
프레임 안으로 들어선 활기찬 소녀의
웃음이 너무나 예뻤다.
역시 어느 집이든 아이의 밝음과 명랑함,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절집도 그렇다. 사람 소리 가득한 마당을
늘 흐뭇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처의 기운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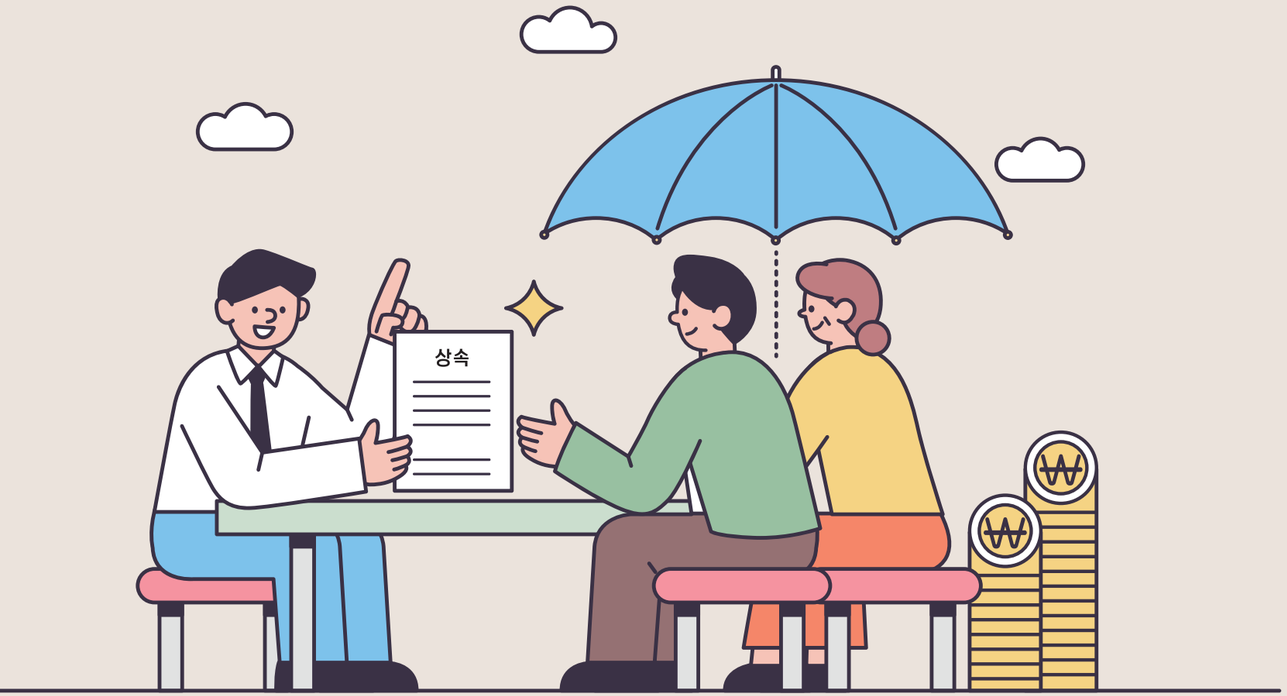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회한인지 모를
모호한 표정의 한 노부인은 적광전 문틈으로
보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계단 끝에 장식된 석상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서 한편 내가 보였다.
누구나 아끼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실수하지
않으며 불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게, 연인에게, 학생에게, 동료나
후배에게, 때론 선배에게 충고나 조언의 말을
꺼낸다. 그 시작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다. 하지만 이해하고,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상대의
오해와 편견이 느껴지는 순간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이전에 오롯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다른이의 주관적
판단이 불편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억지로 참지 않고 그 마음에 도달하는 날이
오면 부처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일까?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어머니 명의로 상속 재산을 넘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나타내 준다. 추석은 이러한 가을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민족 대명절이다. 오천수(가명)는 추석을 기념하여 고향 강릉에 내려갔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5형제가 처음으로 한 곳에서 모였다.

오천수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후자금도 필요하니, 모든 상속 재산을 어머니에게 넘기고 나머지 5형제들은 포기하자고 제안했다. 오천수의 5형제들처럼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한 분이 전부 상속을 받게 하고, 나머지 형제자매가 포기하는 형태로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만일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로, 가급적 상속 포기 기간 내에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어머니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것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전하면 사해 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추정되고, 법원은 웬만해서는 이 추정을 번복해 주지 않는다. 물론,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전 상속재산을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 의사가 추정되지 않고 본 사례도 있으나, 대법원은 2024년에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를 뒤집고 사해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상속재산을 넘겨드렸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소송을 당하는 불행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해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 상당액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또,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가급적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둘째로,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형제들에게 현재 채무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형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거나 그 형제의 상속 지분은 그대로 두는 편이 좋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이미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고,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채무자인 형제의 상속 지분의 소유권 이전 부분은 취소하고 그 형제 명의로 이전하고,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 편이 좋다.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다시 소송을 당해도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하는 취지로 합의하는 편이 좋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천수는 제때에 적절한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글 **주상은**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 · 중환자 진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정 요건인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종합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할 수 있는 수술 · 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여부를 모두 충족하며 우수한 진료체계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경기북부 권역 중증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 중증 치료기관, 지역 분만기관 3단계로 구성된 병원 간 연계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권역 중증 치료기관으로서 권역 내 대표기관과 협력해 임산부의 산전 · 분만 · 산후관리를 담당하며, 고위험 산모 상담 및 상급기관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폐렴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진료 역량 입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감염질환 대응과 약제 사용 관리 전반에 걸쳐 의료 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폐렴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산소포화도 검사, 중증도 판정도구 활용, 항생제 투여 시점 등 총 5개 항목에서 고득점을 기록해 6회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어 발표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도 급성 상기도 감염 및 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 건당 약품목수 등 핵심 지표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SOD몽골그룹 회장단, 의료 교류 협력 논의

몽골 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SOD몽골그룹의 아난드바자르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7월 1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양 기관 간 의료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의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아난드바자르 회장은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진행 중인 '힐링케어메디컬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의료 서비스 및 인적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용해 병원장은 "병원의 가용 가능한 의료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안하신 해외 의료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픈헬스케어와 국제 진료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5일 오픈헬스케어와 국제 진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 인적교류 ▲외국인 환자의 사전 진료 및 사후 관리 등 국제 진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진료 연계와 관리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국제 진료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병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일 주요 병동 및 진료 부서를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병원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실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활동으로 병원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서별로 업무 중 발생하는 안전 이슈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생생히 전달되었으며 경영진은 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함께 환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 선포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난 7월 8일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교직원이 환자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백용해 병원장은 "2023년 4차 평가의 아쉬움을 딛고, 2025년에는 반드시 1등급 획득과 고양시 1위 달성을 이뤄내자"고 강조하며 "환자경험은 모든 부서의 협력과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종별 대표의 선언문 낭독과 상반기 우수부서 시상, 환자경험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특강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경험 1등급 달성과 조직 협업 강화를 위한 결속의 계기를 마련했다.

2025년 감염관리 주간행사 및 감염재난훈련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7월 11일 '슬기로운 감염관리 생활, 다제내성균을 부탁해!'를 주제로 감염관리 주간행사 및 감염재난훈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터 전시를 시작으로 손위생 캠페인과 감염관리 퀴즈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감염재난 훈련은 올해 완공 예정인 긴급치료병상 운영 계획과 재난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재난 대응 고려사항에 대한 토의와 실습을 통해 병원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 한방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6월 15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 '제20회 이주민 문화축제'에 참여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지원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진료상담과 침 치료, 한방의약품 제공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방의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소외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최단기간 500례 달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는 2024년 6월 로봇수술 첫 시행 이후 11개월 만에 500례를 달성했다. 4세대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 도입 후 2개월 만에 100례를 기록했고, 2025년 2월 단일공 '다빈치 SP'를 추가 도입해 경북 최초로 2대의 로봇수술 장비를 운영 중이다. 김도균 교수팀은 2025년 5월 22일 기준 총 500례(다빈치 X 400례, SP 100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단일 진료과 기준 최단기간 최다 실적이다. 자궁근종, 선근종, 심부 자궁내막증은 물론 국내 최초로 골반신경병성 통증과 다양한 심부자궁내막증 병변을 로봇수술로 치료하고 있으며, 자궁 기능과 생리를 유지하며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폐렴 / 정신건강 입원영역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와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폐렴 평가는 종합점수 98.8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6회 연속 1등급을 달성했고, 산소포화도 검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에서도 각각 90.6점, 92.7점으로 1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입원영역 평가는 3회 연속 1등급을 기록해 진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필수의료 역량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필수 의료분야에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책임을 다하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 혈액투석 월 1,200례 달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인공신장실은 지난 6월 19일, 월 1,200례 혈액투석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현재 29대의 최신 혈액투석기(FMC-5008)를 운영 중이며, 체온 모니터링, 실시간 적절도 평가, 누수 감지 센서 등 첨단 기능을 통해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요독 제거와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 온라인 혈액투석 여과(Online HDF)도 시행 중이다. 병원은 경주를 찾는 타 지역 투석 환자에게도 투석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 중에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전립선비대증 최신 수술법, 리줌(Rezum)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절개없이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최소침습 수술법 '리줌(Rezum)'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리줌 수술은 고온 수증기를 내시경 끝 주삿바늘로 전립선 조직에 직접 주입해, 정상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고 비대해진 부위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식이다. 50세 이상 중장년층 환자에게 적합하며, 절개나 삽입물이 필요 없는 수술로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로 가능하다. 전립선 기능을 보존해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며, 1회 수술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응급의학과 김영갑 교수, 119 구급지도의사 위촉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응급의학과 김영갑 교수가 지난 7월 15일 '119 구급지도의사'로 위촉됐다. 김영갑 교수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년간 경주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활동하며, 구급대원 대상 의료지도, 교육훈련, 사후평가 등으로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이번 위촉을 통해 경주소방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카카오톡 채널 통해 '당신을 위한 건강 노트' 제공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당신을 위한 건강 노트'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한 이용자들에게 매월 한 차례, 건강 정보와 함께 관련 진료과의 예약 링크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병원의 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심사와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콘텐츠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여름날 마음 '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6월 14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교직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에 귀의하며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지도법사 보경스님 지도 아래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봉은사 곳곳을 둘러보며 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통해 명상과 일상 속 불교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특히,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대하라"며 교직원들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전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통증캠페인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7월 14일 '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개념과 목적, 대상자를 올바르게 알리고,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병원 방문객들은 암성 통증에 관한 OX 퀴즈, 통증 관련 정보지 배포,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에 큰 호응을 보였다. 김근우 병원장은 "올바른 암성 통증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올바른 완화의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시공덕

법일스님이 6월 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불교병원이 더욱 신뢰받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재를 회향했다.
스님은 "약사여래의 서원처럼 병원이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보우스님이 6월 9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스님은 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불교병원이 더욱 성장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했다. 특히 약사여래불의 12대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불심을 더했다.

익명의 불자 두 분이 6월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총3억 원의 발전기금을 회향하며 불교병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이어주었다. 과거 완화의료센터 병동 개소를 위해 고액을 보시한 바 있는 불자는 또 다른 불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소중한 후원을 이어주어 이번 기부는 특히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두 분의 회향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으로 병원의 곳곳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05년 개원 이래 병원의 건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님과 불자 등 불교계의 자비심과 보시공덕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두 분의 기부 회향은 단지 재정적 지원을 넘어 불교병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상징적인 기부로 그 의미를 더 했다.

서운스님이 6월 19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7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산중 작은 절에서 수행 중인 서운스님의 회향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을 실천한 자비의 나눔이자 불교병원을 향한 깊은 신심과 원력의 표현이었다. 스님의 이 뜻깊은 보시는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으로 병원 구성원들에게는 정진의 힘으로 전해져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금 불자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구 지원을 위해 6월 23일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연구기금으로 2천만 원을 쾌척한 바 있는 박순금 불자는 이번 추가 기부로 그 의미를 더했다. 박순금 불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질병치유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생전 불교병원에 깊은 신심과 원력을 지녔던 故 **운봉스님**의 회향의 뜻을 받들어 법주사 수정암 도감 석준스님이 7월 8일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달했다.
故 운봉스님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삶을 실천하신 수행자로 이번 자비 회향은 불교병원에 대한 애정과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석준스님은 스님의 장례식장에서 백용해 병원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운봉스님의 뜻을 이어 불교병원이 중생을 위한 자비의 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운봉스님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깊은 인연을 맺고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불자 기업인인 지영선, 김옥란 부부**가 7월 14일 병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희사해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몇 해 전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온 인연 깊은 한 스님의 보시행에 깊이 공감하며 기부를 결심한 것이다. "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치유를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부부는 꾸준한 신행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7월 22일 **익명의 스님**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생전에 불교병원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은사 스님의 염원을 받들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불교병원에 첨단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회향했다.
상좌 스님은 "불교병원이 자비의료와 생명방생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기를 바랐던 은사 스님의 뜻을 회향하며,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7월 3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희사했다.
상진스님은 "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태고종 스님들과 종도들의 건강과 수행을 위해 애쓰주신 불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혜능스님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작품 두 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빛_지구촌'과 '빛_유물터'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혜능스님은 하나의 캔버스가 아닌 여러 장의 그림 조각을 겹쳐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이 작품들은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성찰을 유도하며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혜능스님은 현재 경산 제석사 주지스님이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지도법사로서 병원포교와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김영숙	200,000,000
익명	200,000,000
홍정욱	100,000,000
(주)아라니아	15,000,000
백수활	15,000,000
익명	10,150,000
모경개발(주)	10,000,000
법일스님	10,000,000
보우스님	10,000,000
선본스님	10,000,000
故 운봉스님	10,000,000
이선희	10,000,000
서운스님	7,000,000
덕성개발(주)	5,000,000
성본스님	3,090,000
정법스님	3,000,000
진＊스님	3,000,000
효일스님	3,000,000
경주시 보건소	2,149,750
홍순지	2,000,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1,436,030
현수스님	1,060,000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1,000,000
성묵스님	1,000,000
송현학	1,000,000
수관스님	1,000,000
신선기	1,000,000
원담스님	1,000,000
이명규	1,000,000
현각스님	1,000,000
혜각스님	1,000,000
환월스님	1,000,000

각무스님 권희재 김소라 김태영 동국대 박정자 선보스님 신형신 유영철 이선희 이지영 전순영 조성만 최성옥 현문스님
강경민 금곡스님 김소원 김태윤 학교경주 박정화 선영스님 신혜영 유정임 이설희 이지원 전아정 조소영 최성현 현완스님
강경임 금아관광 김수림 김태은 한방병원 박정희 선일스님 신호진 유주형 이세임 이지현 전용화 조수빈 최성훈 현우스님
강금주 김가빈 김수연 김판호 동냉사 박종학 선재스님 신희정 유창국 이소영 이지호 전원용 조수진 최소영 현재호
강명숙 김가영 김수정 김하겸 동림떡집 박준엽 선혜스님 심규용 유창수 이소정 이진권 전윤미 조승호 최순식 현진스님
강석진 김강림 김수헌 김한성 동성스님 박준자 성광스님 심미나 유현숙 이송이 이진희 전은영 조아광고 최승웅 혜광스님
강선영 김경숙 김수희 김해옥 동심 박중희 성덕스님 쌍계사 유형주 이수진 이찬순 전재용 조아라 최영자 혜광스님
강세연 김경숙 김숙경 김해정 모금함 박지혜 성범스님 안나경 윤금섭 이수철 이창실 정경숙 조영록 최예나 혜근스님
강시우 김경순 김숙영 김현규 동진스님 박진우 성보스님 안대승 윤기화 이승덕 이채원 정경윤 이갑순 최완우 혜능스님
강연주 김경옥 김순덕 김현서 드림 박철근 성봉기 안도화 윤명희 이승우 이춘자 정경은 조원복 최유안 혜능스님
강은석 김경호 김순덕 김현준 네트워크 박형호 성수스님 안동순 윤민아 이승숙 이충진 정경철 조윤복 최유정 혜도스님
강이일 김경희 김순례 김형수 류경현 박해련 성수현 안숙자 윤병하 이승주 이태우 정공스님 조은주 최은정 혜륜스님
강인자 김경희 김시연 김혜숙 류대안 박향미 성숙희 안영길 윤복연 이승철 이태우 정공스님 조익준 최은희 혜인스님
강태양 김광기 김연화 김혜자 마의자 박현강 성원석 안인숙 윤성현 이시은 이한희 정관스님 조정숙 최은희 혜연스님
강해성 김광오 김영려 김혜정 만불선원 박현숙 성원스님 안지은 윤수임 이애림 이해원 정기스님 조주연 최인영 혜원스님
강혜진 김광태 김영미 김혜진 명순정 박현식 성윤건 양광영 윤순선 이애영 이향년 정길석 조현순 최인주 혜일스님
강희경 김국현 김영민 김호준 명심스님 박효빈 성은주 양예지 윤승헌 이양희 이향미 정동우 조현우 최인하 혜정스님
경보호 김귀연 김영복 김환례 명환스님 박효진 성진스님 양오남 윤승환 이연희 이향지 정룡스님 조혜진 최인환 혜철스님
경은스님 김규빈 김영숙 김효빈 모종은 박희철 성학스님 양인숙 윤영준 이영미 이현복 정목스님 조효담 최재원 혼성스님
경조스님 김규훈 김영은 김희경 묘수스님 반공스님 성효은 엄나현 윤원주 이영미 이현서 정미라 조희경 최정미 홍민재
경희스님 김근우 김영진 김희석 묘전스님 배다희 세영스님 엄미애 윤은주 이영숙 이현숙 정미라 조희군 최정민 홍민희
계선스님 김기연 김영현 김희영 묘희스님 배상만 소선기 엄희경 윤정림 이영실 이현창 정미선 조희연 최정숙 홍승숙
고금자 김남수 김영혜 김희예 무관스님 배상한 소연스님 여옥스님 윤정선 이영아 이형경 정보옥 종인스님 최정화 홍여옥
고완영 김남숙 김영화 김희정 무구스님 배서영 소행연 여현스님 윤정희 이영일 이혜근 정석화 종일스님 최주하 홍유실
고재영 김남희 김예경 김희진 무진스님 배수현 손귀득 여휘경 윤재은 이영찬 이혜숙 정성애 종찬스님 최준용 홍은순
고재욱 김다혜 김예진 나경스님 문규선 배용순 손기원 연강숙 윤해서 이예린 이호준 정성훈 주경식 최진영 홍은정
고지현 김단혜 김용배 나옹용 문장우 백두진 손명희 염윤정 윤해진 이예슬 이효정 정수스님 주경희 최창익 홍주혜
고채연 김덕희 김용섭 남유화 문종남 백승진 손민표 염주홍 윤혜진 이옥기 이희영 정숙희 주상봉 최현아 화응스님
고현스님 김도연 김용숙 남정애 문효남 백용해 손영욱 영인스님 윤효영 이용찬 이희지 정승택 주은명 최현정 환성스님
공자윤 김도연 김원교 남현미 밀엄스님 백윤정 손익조 오경석 은정스님 이용필 인광스님 정승택 주은자 최혜성 황민섭
공태웅 김도연 김유빈 남현숙 박경문 범선스님 손재현 오금남 이강희 이용희 인승순 정승현 주혜스님 최효원 황석환
공태훈 김도현 김윤정 남화연 박경숙 법륜스님 손정숙 故오기남 이경미 이우섭 인준용 정심스님 지광스님 최희원 황설희
공학배 김동오 김은미 노경란 박 관 법명스님 손정훈 오명옥 이경민 이원상 일진스님 정양임 지련스님 탄옹스님 황수미
곽기순 김동일 김은정 노명서 박근우 법정스님 손주연 오미정 이경순 이원찬 일청스님 정연우 지묵스님 탄정스님 황순덕
곽범석 김명숙 김은정 노영수 박근화 법진스님 손채령 오민희 이경신 이유나 임가원 정연화 지연순 탄하스님 황영지
관정스님 김명숙 김은진 노현주 박나현 법천스님 손효옥 오성은 이경원 이윤미 임경자 정영록 지운스님 탄하스님 황영철
관진스님 김명숙 김은희 능자스님 박대호 법해스님 손효정 오수진 이경환 이은미 임동하 정영희 지유스님 편수연 황은선
구남이 김명희 김의정 담원스님 박동우 보경스님 손효진 오영선 이경희 이은우 임명숙 정원기 지일스님 편정숙 황용선
구도환 김무종 김익환 대광스님 박동진 보경스님 손희진 오용상 이구솔 이은이 임상혁 정원스님 지해스님 포항북구 보건소 황윤진
구병수 김문식 김인숙 대과스님 박동화 보관스님 송경혜 오인숙 이규보 이은자 임선희 정원준 지현스님 황윤자
구복심 김문희 김인영 대업스님 박미형 보관스님 송국현 故오정열 이금나 이은정 임성우 정은경 진견스님 표근종 황은영
구순점 김미경 김재은 대원스님 박미혜 보관스님 송동현 오지은 이나현 이은주 임윤정 정은경 진경스님 표정연 황인준
구점해 김미경 김전충 대한불교 조계종 박상희 보리수 송보윤 오진숙 이남정 이은진 임재범 정이선 진경애 하경임 황재영
국중돈 김미경 김정미 봉덕사 박선욱 본각스님 송운스님 오치훈 이도권 이자경 임재선 정일스님 진묘스님 하윤경 황정선
권경순 김미숙 김정미 박성미 봉만스님 송은호 옥천암 이도현 이재노 임종대 정재스님 진성스님 하정희 황정수
권기현 김미숙 김정배 대한불교 조계종 박성주 부경스님 송주의 올피인 이동욱 이재순 임창금 정재우 진성스님 하현지 효광스님
권나영 김미정 김정섭 용주사 박성파 부동스님 송창숙 용인스님 이동현 이재연 임혜경 정재헌 진영숙 한광수 효성스님
권나은 김미형 김정수 대한불교 조계종 박세진 부안리 수근스님 우경스님 이동휘 이재천 자운스님 정정숙 진임자 한명숙 흥수스님
권대식 김미화 김정윤 박세현 삼혜스님 수현스님 우덕스님 이명순 이재환 장대현 정주스님 차옥련 한윤희 희덕스님
권도윤 김민규 김정형 원적정사 박수연 상오스님 신경근 우동성 이명혜 이재훈 장동철 정주일 차행운 한은수
권도화 김민성 김정혜 대한불교 조계종 박수혁 서미경 신경민 우보스님 이명희 이정민 장상영 정준호 채은미 한은숙 외 다수 익명
권두경 김병옥 김정훈 박신선 서미영 신경수 우점순 이무화 이정백 장순자 정지우 천수자 한은숙
권명조 김병환 김종대 장안사 박신애 서보열 신능인 우종훈 이문정 이정숙 장양자 정하영 천지스님 한정훈
권명희 김보수 김종애 대한불교 조계종 박애자 서복길 신대규 운서스님 이문희 이정스님 장유민 정한숙 청우스님 한주아
권 민 김보승 김지선 지장선원 故박아임 서연회 신복섭 운아스님 이문희 이정언 故정윤매 정현경 청진스님 한주형
권범선 김삼기 김지연 대한불교 천태종 박영순 서영문 신석재 원 각 이미란 이정우 장이순 정현경 최경연 한지윤
권삼숙 김상록 김지예 박옥석 서영진 신성숙 원공스님 이미수 이정은 장인권 정혜은 최경희 한희경
권성옥 김상민 김지원 대광사 박옥선 서은지 신성현 원명사 이미숙 이정화 장정화 정혜주 최귀정 한희정
권예진 김상철 김진경 덕업스님 박완임 서 준 신영애 원해스님 이민정 이정희 장진스님 정혜진 최금례 한희찬
권오관 김선경 김진영 덕진스님 박원예 서지원 신윤주 유경자 이백상 이종민 장충섭 정환기 최동렬 해덕스님
권오성 김선순 김진용 도견스님 박유진 서 찬 신은재 유광옥 이병기 이종철 장태영 정휴스님 최명권 해량스님
권용태 김선주 김진우 도경원 박은동 서택균 신은주 유기용 이병훈 이주현 장현지 제아람 최무환 행이스님
권일진 김선희 김진희 도과스님 박장신 서희선 신은희 유 로 이보영 이주현 장호근 조갑자 최문전 허성진
권재구 김성겸 김 철 도명스님 박재근 서희주 신정용 메덕스 이상미 이주현 재오스님 조경애 최병철 허은경
권재영 김성묵 김춘동 도민스님 박재숙 석도스님 신정훈 유리예 이상암 이주희 적조스님 조구현 최보운 허정길
권태용 김성원 김태규 도원스님 박재영 선경스님 신진경 유서영 이상현 이주희 전경숙 조동삼 최삼보 허희경
권태형 김세민 김태련 도일스님 박정민 선근스님 신학녀 유선주 이서현 이준길 전류식 조민주 최상돈 현건스님
권희경 김세희 김태숙 도진스님 박정애 선도스님 신현모 유소라 이선아 이지영 전솔이 조상현 최성록 현담스님

100만원 미만 기부자

[기간 : 2025. 5. 1. ~ 2025. 7. 31.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　　)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방병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의료원 소속
병원 중에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기관은 말기 암 환자들이 육체적인 통증은
물론, 정서적 · 영적 고통까지 덜어내며
마지막 여정을 보다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　　)는 무엇일까요?

의견

진료협력센터를 소개한 이번 의료원보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한 달 전, 아이가 중이염으로 고생하던 중
지역 의원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1층에 있는
진료협력센터를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며 이비인후과 진료 예약을
적절한 시간으로 신속히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따뜻한 첫인상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금★ 님

칭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김언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게실염 천공으로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과 장루
주머니에 정말 당황하고 아찔했습니다.
늘 천천히, 자세히,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수술
결과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힘들 거예요."라며 아들의 입장을 공감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것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멋진 교수님을 잘 만나 무사히 퇴원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김기★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오십견 / 정답자 : 천혜★

참여 방법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sokuon@dumc.or.kr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취선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 )원씩 / 총( )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세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hongbo@dumc.or.kr / 팩스▶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9. 1. ~ 2026.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gil good in life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휘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절취선

이곳에 풀칠하세요.

자비의료실천의 숲을 이루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자비의료를 실천하는
큰 숲을 이루어 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존중과 자비의 인술로
더 큰 치유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GIVE&기부 TREE는 건강한 삶과 나눔의 가치를 키우는 나무를 의미하며, 동국대학교병원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바로 기부에 참여하셔서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해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신관건립기금)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문의 031·961·9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문의 054·770·8130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문의 031·710·3712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